**자마미: 석양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하기 좋은 명소**

**매릴린상, 가미노하마 전망대, 이나자키 전망대**

자마미항 서쪽 해안 도로를 따라 도보로 불과 10분, 개 매릴린상의 옆에 있는 방파제는 석양을 바라보며 편안히 쉬는 지역 사람들과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.

더 먼 곳에 가고 싶다면 자마미항에서 도보로 40분(또는 아마 해변에서 20분) 거리인 가미노하마 해변으로 트레킹을 즐기며 태양이 서쪽 무인도인 구바시마 섬과 야카비지마 섬 뒤로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? 가미노하마 전망대는 최근 목조 건물로 완전히 개축되었습니다.

‘톱 오브 더 월드’의 기분을 체험하고 싶다면 섬 북쪽에 있는 이나자키 전망대로 가세요. 자마미에서 도보 50분으로 도착할 수 있는 이 전망대는 해발 120m 정도의 장소에 있어서 섬의 네 전망대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. 맑은 날에는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구메지마 섬을 볼 수 있습니다.

**Photos**

1. Marilyn at sunset/night

2. Kaminohama at sunset/night

3. Inazaki Viewpoint at sunset/night